◎ 개요 : 정각에 수강 신청을 한 뒤, 원하는 강의를 모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
이 때, 부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간표 안에서 온전한 시간표를 완성하기 위해,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를 정렬해주는 서비스가 없다.

◎ 관련 서비스

1) (웹) 클레스넷 수강신청: 담아두기 기능 제공, 수강 가능 과목 정렬, 실제 수강 신청

2) (앱) 에브리타임: 임시 시간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

◎ 제안 서비스 (프로젝트명은 가안으로 “올클”이라 하였습니다.)

1. 홍익대학교 서버에서 수령한 과목 데이터를 분류에 맞춰 정리해둔다. (핵교1, 핵교2, 컴공3학년, 경제2학년..)

유저는 수강신청 시, 필수적으로 듣고 싶은 대분류 혹은, 세부 과목을 미리 담아둘 수 있다.

(졸업 요건, 장학 요건 등의 필수 과목 수강을 위한 기능)

2. 홍익대학교 클레스넷(웹)에서 정각에 수강 신청을 1회 한 뒤, 성공 여부 및 수강 가능 과목의 데이터를 실시간 변화에 맞춰 “올클”이 데이터를 수령한다.

단,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(1) 서버에서 “올클”로 데이터를 받는 방법.

(2) “올클”에서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

3. **(주 서비스)** 수강 신청 후, 실패한 시점에서. 내가 성공한 과목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 시간표에서, 내가 “담아둔 과목” 중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.

(추가 서비스) 3번의 기능에 의해, 내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을 “올클”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기능.

여러 가지 과목이 나타날 때, 내가 원하는 과목만 클릭하여, “올클”내의 “수강신청” 버튼을 클릭하면, 클레스넷의 담아두기 수강신청처럼 자동으로 한 번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